

최근 글로벌 FDI의 추이와 향후 전망

글로벌 FDI의 증가 추세가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글로벌 경쟁역량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상하 연구원 shyoon@lgeri.com

글로벌 FDI 큰 폭 증가세로 반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가 2000년대 초반의 부진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집계 따르면 지난 1990년대 후반 세계경제의 고성장세를 배경으로 빠르게 증가했던 글로벌 FDI는 2000년 1조 4,096억 달러(유입액 기준)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IT 버블의 소멸과 세계경기의 동반위축 등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3년 만인 지난 2003년의 경우 글로벌 FDI 실적은 5,579억 달러로 2000년 최고치의 60%에 불과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 수년간 부진을 지속하던 글로벌 FDI는 지난 2003년을 저점으로 다시 회복세로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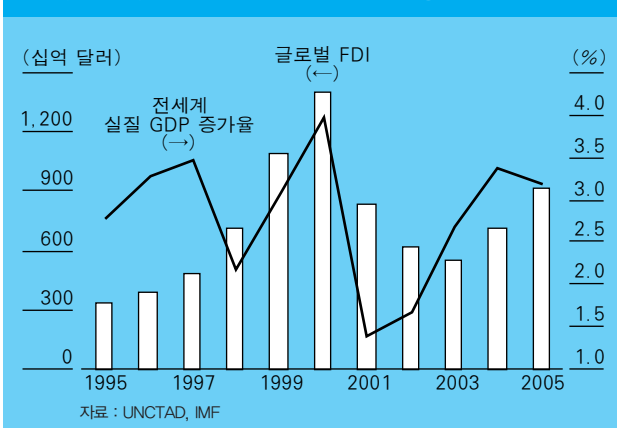
아서 최근에는 2000년 당시 수준의 활기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재차 3%대로 진입하고 수익성 개선으로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영역 확대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2004년의 7,108억 달러에 이어, 2005년에는 9,163억 달러, 그리고 지난해인 2006년에는 2000년 당시의 사상최고치에 육박하는 1조2,304억 달러(잠정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FDI 붐(bloom)이라고 할만한 양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림 1) 참조.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대폭 확대

최근 글로벌 FDI가 다시금 회복세를 보인 데에는 무엇보다 신흥시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 우선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FDI 절대금액 규모를 보면 글로벌 FDI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0년 2,759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3,740달러로 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선진국으로의 FDI 금액은 1조1,337억 달러에서 5,423억 달러로 52.2%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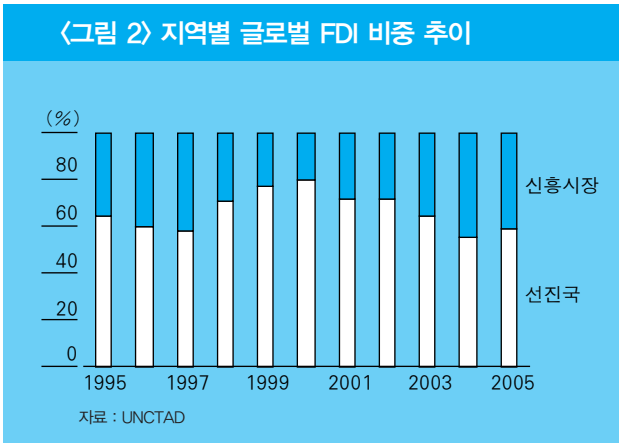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전체 글로벌 FDI에서 신흥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0년 19.6%에 불과하던 신흥시장으로의 FDI 비중은 2004년에는 44.3%까지 확대되어 선진국향(向) FDI 비중에 근접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2005년에는 40.8%로 그 비중이 다소 낮아졌으나 신흥시장으로의 직접투자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매

〈그림 1〉 글로벌 FDI 및 실질GDP증가율 추이



**신흥시장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글로벌 M&A 활성화가
최근 글로벌 FDI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그림 2〉 지역별 글로벌 FDI 비중 추이



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 당시와는 매우 다른 특징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처럼 중국 등 신흥시장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이들 신흥시장 국가들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발 벗고 나서면서 민영화 기업 매물이 크게 늘어났고, 선진국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와 소비시장 확보를 위해 저임금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을 활발히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선후진국 기업들 M&A에 많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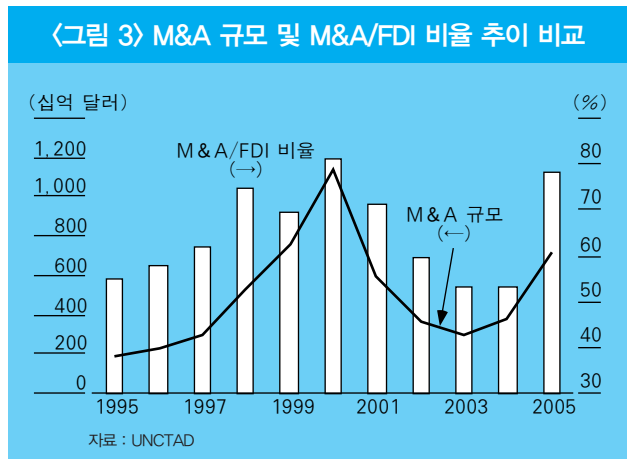
FDI 유형별로는 공장이나 판매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그린필드(Greenfield)형 FDI의 비중이 줄어들고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M&A형 FDI가 활기를 띠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보유 증가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M&A 투자가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 글로벌 FDI 회복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의 경우 총 1조1,438억 달러에

이르렀던 전세계 M&A 실적은 이후 세계경제의 부진과 증권시장의 위축 등으로 2003년에는 2000년 실적대비 74.0%나 감소한 2,970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이후인 2005년에는 7,163억 달러에 달해, 2000년과 199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FDI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53.2%에서 2005년에는 78.2%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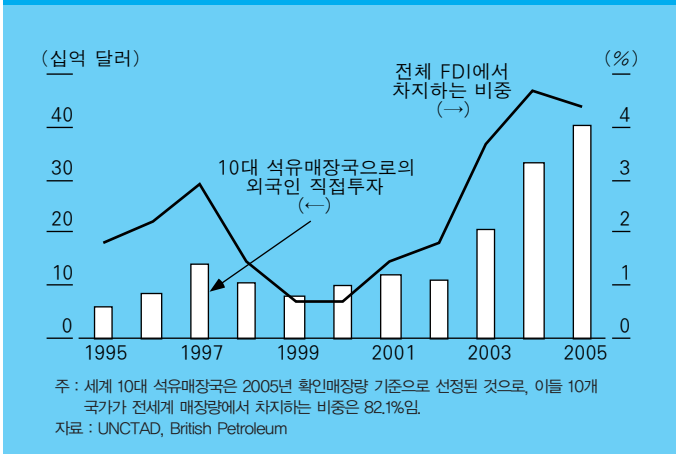
이러한 글로벌 M&A의 증가세는 물론 미국과 EU 등 선진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 기업들의 참여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즉 세계경제의 호조와 실적 개선에 힘입어 막대한 현금유동성을 보유하게 된 선진국의 유력 기업들이 사업영역의 확장에 대거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 등 후발개도국 기업들도 자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글로벌 M&A 대열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등 선후진국 기업을 막론하고 글로벌 M&A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추세이다. 실제로 보스턴컨설팅사(BCG)의 추산에 따

〈그림 3〉 M&A 규모 및 M&A/FDI 비율 추이 비교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어
향후에도 글로벌 FDI 확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세계 10대 석유매장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르면 중국기업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 글로벌기업 M&A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원유, 철강석 등 국제원자재 시장의 수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공급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확보 목적의 글로벌 FDI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일례로 세계 10대 원유매장국(2005년 기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2000년 99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402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인 FDI 침체 기간 중에도 이들 국가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2년에만 다소 그 규모가 줄었을 뿐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글로벌 FDI에서 이들 원유 매장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7% 수준에서 2005년에는 4.4%로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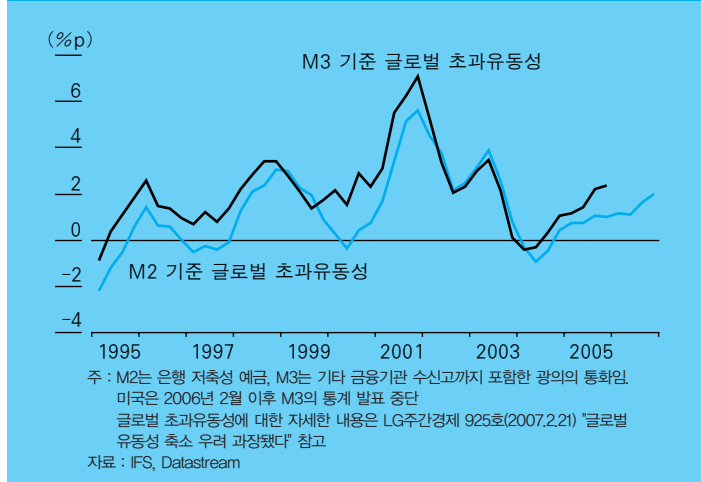
글로벌 초과유동성 확대로 FDI 활기 지속할 듯

2000년대 초반의 부진에서 벗어나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글로벌 FDI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일부 불안정한 요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향후 글로벌 FDI의 지속적 확대를 이끄는 주된 동력이 될 것이다.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탈출과 EU경제의 안정성장 전망에다 세계경제의 최대성장 엔진인 미국경제가 자산버블 붕괴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어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BRICs국가들과, 터키, 베트남 등 신흥시장 경제가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점도 글로벌 FDI 확대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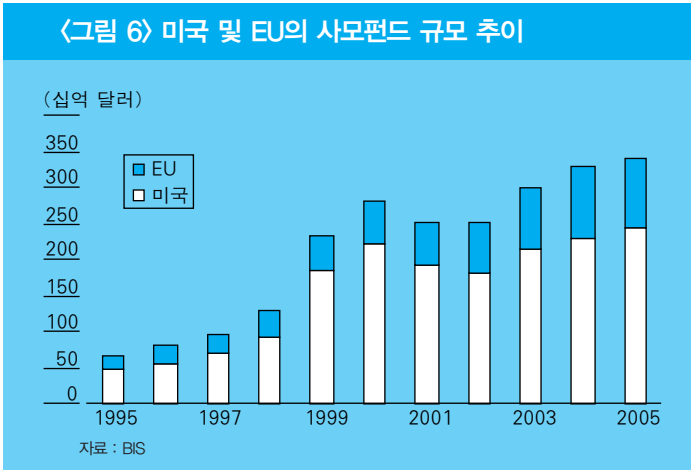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유동성(Global Liquidity)의 증가추세를 들 수 있다. M2와 M3를 기준

〈그림 5〉 글로벌 초과유동성 (=유동성증가율-GDP증가율) 추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M&A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신흥시장 경제로의 투자는 조정기를 거칠 전망이다.

〈그림 6〉 미국 및 EU의 사모펀드 규모 추이



으로 한 글로벌 초과유동성(=유동성증가율-실질GDP 증가율)은 최근 미국 및 EU, 일본 중앙은행들의 긴축기 조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초과유동성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로 유입되어 M&A 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은 2005년 미국과 EU에서의 사모펀드 규모가 3,4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전세계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2005년 1조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도 하다(〈그림 6〉 참조).

실제로 2005년 전체 M&A에서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집단투자펀드(Collective Investment Funds)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는 14.5%, 금액 기준으로는 18.8%를 기록함으로써 2000년에 비해 각각 6.4%포인트, 13.7%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연기금인 칼퍼스(Calpers)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높은 수익률 달성을 위해 이들 펀드에 속속 유입되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을 통한 글로벌 M&A의 왕성한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확산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중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먼저 각 국가들 사이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경제성장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보호,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우대조치 및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미 좋은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 외에도 제3세계의 많은 후발개도국들이 이러한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제도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집계 따르면 글로벌 FDI에 따른 해당 정부와 기업간 분쟁이나 투자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과 이중과세 방지협정(DTT: Double Taxation Treaties)이 2005년 누적 기준으로 각각 2,495건, 2,758건을 기록, 지난 2000년에 비해 각각 28.7%,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흥시장에 대한 FDI는 조정 거칠 듯

향후 글로벌 FDI는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양적인 확장 추세와 더불어 내용면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달러화의 약세 등에 힘입어 미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친화적인 미국의 문화와 무역환경, 투자인프라가 경기회복 및 달러약세와 시너지를 일으켜 미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글로벌 FDI의 약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 불균형, 엔케리 자금의 환류, 반 FDI 정서 확산 등 글로벌 FDI 확대를 위협할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추세로는 신흥시장이 글로벌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흥시장 중 가장 큰 외국인직접투자의 수혜국인 중국의 경우 그 유입규모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일부 산업의 투자 포화상태,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폐지, 노동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중국을 대체하는 유력 생산기지로서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신흥시장으로의 글로벌 FDI는 그 동안의 확장지향형 투자에서 각 투자 대상거점 사이의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한 효율추구형 투자로 전환되면서 조정기를 거칠 전망이다.

다음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토종기업들이 글로벌 FDI의 주요 주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BRICs의 다국적기업들은 아직 그 규모는 작지만 다른 신흥시장뿐 아니라 선진국 기업에 대한 M&A 또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Bloomberg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된 BRICs 국적 기업들의 주요 M&A 대상 10건 중에는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시장뿐 아니라 이태리, 영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등 선진국의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향후 이들 기업의 수익성 및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건수 및 금액 모두 늘어날 전망이다.

리스크 요인도 만만찮아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향후 글로벌 FDI 추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물론 존재한다. 먼저 미국의 과도한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에 기인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위안화 절상 압력과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자산버블의 붕괴와 금융 부실화, 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금리인상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특히 물가상승, 경기과열 등에 대한 우려로 일본은행이 큰 폭의 금리상승을 단행한다면 현재 글로벌 유동성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는 엔케리 자금이 일본으로 환류되면서 글로벌 FDI 흐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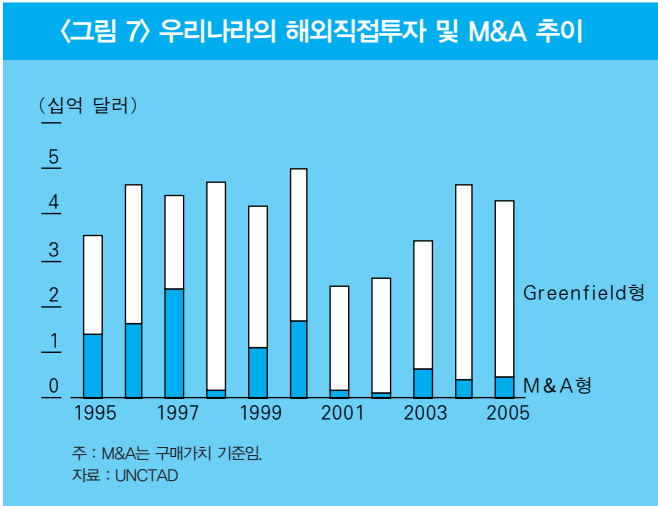
또한 베네수엘라의 전력 및 통신산업 국유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화의 흐름에 반기를 드는 보호무역주의, 국수주의의 발흥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이다.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지의 후발개도국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FDI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외국기업들에 의한 자국기업 인수합병이 국부 유출과 자국민의 사회경제적 후생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반FDI 정서가 정치사회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선진국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성장 격차가 확대될수록 이들 지역의 반외자 정서는 심화되면서 향후의 글로벌 FDI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사업역량의 최적화 필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세계 10대 교역국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아직 미미한 모습이다. 2000년부터 2005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연평균 약 37억 달러로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경쟁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최근의 글로벌 FD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최적의 글로벌 사업구조를 구축하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7〉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및 M&A 추이



0.4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M&A 투자는 연평균 약 5억8,000만 달러로 전세계 M&A 규모의 0.1%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10.5%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림 7〉 참조).

우리기업들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시장의 적시공략과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 운용을 통한 사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략적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투자대상을 모색하는 신규 진출 희망업체는 물론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해외투자를 실행해 놓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글로벌 FD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효율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역량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확장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FDI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특히 M&A에 대한 선후진 각국 기업들의 관심이 제고될 것이라는 앞서의 전망이 우리 기업들의 향후 글

로벌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선진국이든,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이든 M&A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기업들의 몸값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글로벌 단위의 통합된 단일 시장의 출현으로 인해 비단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자사의 핵심적 경쟁역량 확보측면에서 유망 해외기업의 신규인수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적절한 매수시점을 포착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M&A가 아닌 그린필드형 투자의 경우에도 유망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인 만큼 해당국 정부의 관련 정책과 투자환경과 변화 그리고 적정 진출 타이밍의 포착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 해외직접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면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이의 전면적인 재배치를 통해 해외사업 역량의 최적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정부정책이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생산기지나 투자기업의 매력도가 저하되었을 경우, 또는 기존의 투자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우월한 투자후보지역이 출현했을 경우 등이 그 예이다.

글로벌 시장의 통합과 정보인프라의 개선, 각국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지난 90년대 초반 우리 기업들이 막 해외진출에 나설 당시와는 글로벌 사업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글로벌 관점에서 향후 최선의 기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구조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FDI 확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이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ww.lgeri.com